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나'를 내세우기에 걸림이 있어요

☞ 15면에서 계속

일로 채워서 그냥 첨가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모두 교육,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앉혀놓구 서로가 앉을 자리에 앉혀놓구 듣게끔 하구 보게끔하고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천차만별로 직책을 줘서 내보냅니다. 다시금 이쪽으로 태어나서 선지식이 되게끔 이끌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보살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죠. 직책을 갖게 해놓음으로써 자손들이 그 대에 차원의 종자는 점점점점 커지게 돼있습니다. 보살의 행은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해서도 아니되지마는 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것은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천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권리를 주지 않죠. 보살의 행도 권리가 있어야만이 행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모두 문을 열고 귀가 열리고 눈을 뜨게 하구, 지역 지역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 통신이 되고 영령들이 다 깨어나게 하구….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 속에 들은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은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오고 가면서도 모두 그 영령들은 죽은 영령들은 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그래서 발로 걸어서 찾아온다 하면은 그건 아니 되죠. 빚보담 더 빠르니깐요. 그러니 제삿밥을 먹고 안먹고의 문제, 묘지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들이 그만큼 조상님들의 이 세상에 살았던 습을 녹이게 하는 거죠.

우주의 시작과 끝 있습니까

문 큰스님 전에 3배 올리옵고 말씀 여쭈옵니다. 큰스님 옴 마니 반메 훔…… 우주의 법계에서 정말로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생사불멸이라고 하시는데 생사불멸이 맞습니까? 생불멸이 맞습니까?

답 그거는 정신세계의 문제로써 마음없는 마음 그 세계에서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삼천년전도 아니고, 백년전도 아니죠. 현재하고도 미래하고도, 현재하고도 과거하고도 상통이 되고 일체가 하나로 다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구 펼쳐지구, 자유자재하죠. 이 소리는 깨달은 분들은 실체가 어떠한가? 그 의식이 있나, 없나 그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있나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할 수도 없이, 그냥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가 어떻게 있다 없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찰나생활이기 때문에 삼계가 그냥 돌아가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래도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지금 현실이니까요. 이게 고정된 게 없다. 그렇다면 벌써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 생활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구가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데, 수레바퀴처럼 체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거기 뭐가 작년이 있구 내년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없구, 또는 죽은 것도 없다. 그대로 여여하게 찰나 생활로 그대로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죠.

저는 좋은데 도반들이 싫어해

문 저는 도반들이 감사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한데 도반들은 저를 싫어해요. 저는 그들이 나 같고 좋은데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반들이 좋아서 저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지냈습니다

답 어떤 사람이 부잣집 대갓집 집사 노릇을 하는데 마음이 '아, 이런 것만 이렇게 해서 되나.'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집을 잘 지키고, 누구라도 무예를 잘 익힌 사람이 와도 내가 무예를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쁘게 쓰이는 것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공 세우고 잘한 사람이 오면 잘해줄 생각은 안하고 자기가 그냥 주인에 의해서 세울려고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가 죽었는데, 죽어서 뭐이 됐느냐 하면 큰 개로 된 거야. 집사 노릇을 하더래도 마음을 잘 썼으면 그렇지 않을텐데. 마음을 잘못 쓰고, 조금만 누가 기웃거려도 쫓아가서 도둑으로 몰고는 처치해 버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원성을 많이 받다가 고만 죽었으니깐 개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집의 개로 사는데, 항상 문지기를 잘하다가 하루는 어떠한 집에서 배척할 수 없는 귀한 분이 왔는데 그냥 물어제끼니까는 그 개를 없애버렸어요.

잘되고 잘못되고
내탓 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굴레서 못 벗어나

그러나 그 개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날 죽여버렸다 이거죠. 죽기 이전에 생각한 것이 그거야, '나는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개가 생각할때, '나는 잘 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어서 또 다시 개로 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 잘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개로 지금 돼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매달아 놓고 죽이고 나를 태워서 먹게 했나? 이런 거예요. 그게 화두가 돼서 인간의 모습을 쓰게 됐죠. 그게 화두가 돼서 참 사람으로 또 환생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돼 가지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고,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마음을 착하게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전에 있던 그 대갓집으로 태어나서 장군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칼을 함부로 쓰다가 참 그 칼을 좋게 쓰게 됐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순간에 인간이 됐다가, 한순간에 짐승이 됐다가, 한순간에 부자가 됐다가, 한순간에 가난했다가 하는 것이, 이 생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으로만 꼭 나온다는 법도 없고, 우리가 또 지금 가난하다고 그래서 이 다음에 부자로 살지 못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생각을 가난하게 하면은 일체가 가난해지는 거고, 부자같이 생각한다면 일체가 부자인 것입니다.

그거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면, 모든 게 가난하니까, 모든 면에서 쪼달릴 수밖에. 남한테 원망이나 받고 남한테 발길에 채이기나 하고 미움이나 받고 이러는 거죠, 되는 노릇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따돌림을 하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한 생각을 잘하면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 없이 참 부자인 거죠.

틀에 박힌 생활 벗어나려면…

문 안녕하세요? 제 삶에 어떤 틀이 있고, 늘 그 틀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관하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쪽으로 마음내는 것이 기복이 아닌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답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포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예요. 나만 스승인 것이 아니구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려면 강도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스승이예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두 일체 만물만생 또는 삼세, 과거·현재·미래를 한데 합쳐서 삼심·삼세,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 저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곧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가 되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구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하고 거기다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구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도리를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버니까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 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우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그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냥을 벌더래도 또 욕심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예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림 · 최주현

미움을 버릴수가 없어요

문 스님, 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 부처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신행상담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떡하면은 장님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나, 그렇게 되진 말아야 할 텐데, 귀가 열리고 눈을 떠서 자유스럽게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리고 영원히 걸어야 할텐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버이로서 길잡이가 되어야 할텐데… 이런 마음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자생중생들이 수북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자생중생들부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천백억화신으로 출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공부를 게을리하지말고 관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모든 한 생각을 다스려서 거기 굴려놓는 데에 목적을 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몸 떨어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업식만, 자기가 어떻게 살었느냐에 따라서 업식만 그림자처럼 쫓아가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타고난다 하더래도 그 업식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관하는것 게을리말고
몸속 자생중생들을
내마음으로 다스려서
굴려놓는게 급선무

그러니 우리 좀더 마음을 분발해서, 나는 생활을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는 사실을 일러드릴 뿐입니다. 그 모든 살림살이를 바로 누구가 하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일체 잘못되고 잘 되고는 내 탓이라고 꼭 정정해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미움을 받거나 남을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백날 해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한마음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합니다.

깨달은 후에 전법해야 하나요

문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두 남매와 아내를 둔 37세 된 가장입니다. 현재는 생계를 위해 원주에서 버섯농사를 짓고 있으며, 지난 97년도에는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을 나와, 법사 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다할 수행체계는 아직 행하는 바가 없지만, 모든 불교교리에 대한 확신과, 한마음 주인공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항상 마음 밑바탕에 간직하고 생활속에서 돌려놓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행이 부족해, 순간적인 경계에 부딪혔을 때는 잠시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내 한마음 주인공에 되돌려 놓곤 합니다. 여쭈올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교리, 사상 시각과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깨달음을 이웃과 인연들을 위해 작위적 활동(법사 활동-법회를 이끈다든가, 불교상담을 한다던지, 불교단체를 이끄는 활동들)을 통해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수동적으로 인연 닿는대로만 포교하고 스스로의 수행에 몰두해 완전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전법도생 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전까지의 저의 생각은, 내 수행이 아직 부족한데 어찌 남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수행을 완전히 이룬 후에야 비로소 남도 바르게 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지만, 요즘은, 이웃과 중생을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라도 불교상담정도는(불교상담한다고 명함이라도 하나 파서, 이웃과 인연들에게 나눠주며 같이 깨달아 나가는 것)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어느 큰스님은 천년의 학이 될지언정 한 철의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고 하였고, 다른 큰스님은 다함께 배워가며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답 멀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거는 한 별성이기 이전에 혹성이기도 합니다. 혹성안에 오대양 육대주가 돌아가는 거와 같이 오장 육부가 그러하니까요. 이것을 가까운데 두고 모른다면은 우리 우주의 전체, 무와 유의 세계의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남을 이끌어줄 수 없고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겼고 상대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고 천태만상으로 생긴 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생겼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이름이나 찾고 어떠한 허공이나 바라보면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맛을 본다는 사실. 이것만이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쫓기며 쫓으면서, 이렇게 밟히며 또는 밟으면서 인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간이 된 이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굳이 인연을 끌어서 내가 가르칠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인연 닿는 대로 오직 내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그 뿌리에다 믿고 맡겨 놓으라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신다면 무슨 이름을 가지든 안 가지든 당신의 역할을 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팔자운명 바꾸고 싶습니다

문 많은 사람들이 팔자와 운명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 팔자나 운명을 마음공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인과를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답 이 공부를 안 하면요, 과거에 살던 모자라는 거든지 잘하는 거든지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살던대로 그것이 전부 몽땅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가지고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입력된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거를 무어라고 말들을 하느냐면 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나는 잘못도 안했는데 운명이 이렇고 팔자가 이렇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팔자를 못 면하니까 자기 한대로 못 면하니까,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몸뚱이가 있는 걸로다 잘못하지마는, 인과로서 뭉쳐지는 업보는 마음으로서의 잘못된 의식 자체들이 그냥 전부 걸려가지구선, 그러니까는 백지에 글씨 적혀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무심 컴퓨터에 입력이 돼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유심으로 나오고 유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 행으로 그냥 꽉 뒤집어엎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마음속에서 다시 확연히 그것을 다 벗어버리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 자리서 보면 일체가 다 '나' 입니다
풀 한포기 돌 하나 흐르는 물 모두 스승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승에 나올 때 전 여자였으며, 분명 아이를 낳고 산 것을 보면 여자일 터인데, 여자가 아님은 무슨 이유일까요. 삶에 차원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전 그저 제 차원만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존재를 일러주었습니다. 제 자신 거울을 닦아도, 안 닦이는 얼룩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용서'하라 하셨지만, 아직도 부족한 인간이매, 그것이 안되어, 결국 제 입이 더러워짐이 한심할 뿐입니다. 전 제가 그 무엇도 아님을 압니다. 제 속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전 아이들을 택했고, 저로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과연 '무조건적인 '용서'입니까? 용서가 또 무엇입니까? 제 자신 무력하고, 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애써 알려 주려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음이 답답하고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